

# 마운드 정상화·야수 세대교체... KIA 새판짜기 돌입

마무리 캠프단 45명 오키나와 출발... 투수진 필승조 찾기 주력  
1군 주축 고령화 대비·수비 강화·유격수 백업 육성 등 과제 산적

‘호랑이 군단’이 2019시즌 퍼즐 맞추기에 들어갔다.  
KIA 타이거즈 마무리 캠프 선수단이 29일 인천 공항을 통해 일본 오키나와로 떠났다.  
몸살로 병원에 입원한 김기태 감독을 제외한 김민호 야수 총괄 코치 등 코칭스태프 13명과 ‘에비역’ 박준표·전상현 등 투수 14명, 최원준·박준태 등 야수 14명, 한승택·신범수 등 포수 4명 등 총 45명이 오키나와행 비행기에 올랐다.  
KIA는 마운드 정상화·내야 백업 육성이라는 숙제를 풀어가면서 2019시즌을 위한 밑그림을 그려

야한다.  
선발진을 향한 예비 경쟁이 전개될 투수조에 먼저 눈길이 쏠린다.  
KIA는 올 시즌 임기영의 부상 여파와 4·5선발 후보들의 부진으로 선발진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핵터의 하락세 속에 팻딘도 선발에서 중간으로 자리를 이동했다.  
그때도 선발진에 새 얼굴이 등장했다. 선발 기회를 얻은 한승혁이 기록을 보이기는 했지만 5.83의 평균자책점과 함께 7승 3패의 성적으로 첫 선발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선발진 경쟁에 우위를 점

한 상태.  
임기영의 부진 속 임창용도 팀을 떠나게 되면서 4·5선발 경쟁이 이뤄질 전망이다. 우완 김윤동과 좌완 임기준에 편중됐던 볼펜의 짐을 덜어줄 필승조 찾기도 이뤄진다.  
나란히 퓨처스리그 북부리그·남부리그 평균자책점왕·다승왕 타이틀을 차지한 박준표와 전상현과 함께 이민우, 홍건희 등은 선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원들. 마무리 캠프 선수단 최고참 박경태와 함께 이준영, 김우신, 하준영, 백미카엘 등은 좌완 경쟁을 펼친다. 부상으로 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차명진도 어필 기회를 얻었다.  
야수진의 우선 과제는 ‘수비’다.  
‘공격’에 무게가 실리는 1군 주축 선수들은 나이도 고만이다. 주전 라인업의 막내 안지홍도 내년

이면 30대에 진입하지만, 올 시즌 야수진의 세대 교체 바람은 미미했다.  
기대를 모았던 최원준은 특유의 공격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쟁쟁한 선배들에 밀리면서 자기 자리를 굳히지 못하고 다양한 포지션을 섭렵해야 했다. 타격 실력은 소문난 황대인, 류승현도 역시 수비에서 약점을 보이는 만큼 마무리 캠프에서 수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유격수 백업 찾기도 시급하다. 시즌 내내 불안한 수비에서 승리가 새어나갔고,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도 수비에 발목을 잡혔다. 주전 유격수 김선민의 부상으로 첫 포스트 시즌 무대에 오른 황윤호의 실수 연발 속 KIA는 쉽게 역전을 허용했다.  
이번 캠프는 ‘소통’의 시험대도 될 전망이다.  
올 시즌 KIA 선수단과 코칭스태프, 선수단과

구단 사이의 내부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곳곳에서 잡음이 발생했다. 전력을 한데 모으지 못하면서 ‘다랜딩 챔피언’ KIA는 초라한 5위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다.  
KIA는 이번 캠프에서 ‘총괄 체제’를 가동한다. 수석 코치를 대신해 김민호 야수 총괄 코치, 강상수 투수 총괄 코치 체제로 팀을 운영하게 된다.  
특정 포지션에 치우치지 않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야수진과 투수진을 운영하면서 다양하게 소통을 하겠다는 계산이다. 의도는 좋지만 단일화된 창구를 통한 운영보다 효율성이나 위기관리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단점은 있다.  
많은 숙제를 안고 오키나와로 떠난 마무리 캠프 선수단이 내달 27일 어떤 성과를 안고 돌아올지 기대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넥센 ‘기사회생’ 한현희에 달렸다

오늘 PO 3차전 SK 박중훈과 잠수함 선발 대결... 시리즈 2패 ‘벼랑’

SK 와이번스 박중훈과 넥센 히어로즈 한현희가 5전 3승제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잠수함 맞대결을 벌인다.  
트레이 힐만 SK 감독과 장정석 넥센 감독은 지난 28일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플레이오프 2차전이 끝난 뒤 30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3차전 선발을 미리 공개했다.  
인천에서 열린 플레이오프 1, 2차전에서는 홈런 7방을 폭죽처럼 터트린 SK가 넥센에 2연승을 거두고 한국시리즈 티켓까지 1승만을 남겨두고 있다.  
박중훈은 올해 정규시즌 30경기에 등판해 159.1이닝을 소화, 14승 8패 평균자책점 4.18을 기록하면서 2년 연속 두 자릿수 승리를 거뒀다.  
투구 시 손이 그라운드에 거의 닿을 정도인 정통 언더핸드 투수다.  
제구력이 약점이었던 그는 올해 불넷을 줄인 덕분에 10번의 퀄리티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내)에 성공했다.  
정규시즌 넥센을 상대로는 2경기에서 10이닝을 소화해 1승 평균자책점 2.70으로 강했다.  
넥센 타자 가운데는 김하성이 2타수 2안타 2타

점, 김혜성이 3타수 3안타 1타점으로 박중훈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벼랑에 몰린 넥센은 사이드암 선발 한현희 카드로 분위기 전환을 시도한다.  
한현희는 정규시즌 30경기에서 169이닝 11승 7패 평균자책점 4.79로, 데뷔 후 처음으로 선발 풀타임 시즌을 치렀다.  
SK전에서는 5경기 27.1이닝 1승 3패 평균자책점 5.86으로 성적이 좋지 않았다.  
이번 포스트시즌에서 한현희는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엔 볼펜으로 등판해 아웃 카운트 없이 1실점, 한화 이글스와의 준플레이오프에서는 선발로 나와서 3이닝 4피안타 6사사구 4실점(3자책점)으로 무너졌다.  
SK 타선에는 한현희를 상대로 좋은 성적을 거둔 타자가 준비하다.  
경남고 4년 선배인 한동민은 한현희를 상대로 올해 14타수 7안타에 홈런만 4개를 뽑아냈다. 정진기(11타수 5안타), 이재원(11타수 5안타), 김동엽(5타수 2안타 1홈런) 모두 그의 전적이다. /연합뉴스



## 여서정 세계 무대 ‘두각’

카타르 기계체조선수권 단체전 예선 3위로 결선 진출

한국 여자기계체조의 기대주 여서정(16·경기체고 1)이 제48회 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에서 도마 결선에 진출했다.  
여서정은 29일 카타르 도하에서 끝난 단체전 예선에서 도마 1, 2차 시기 평균 14.483점을 획득해 시몬 바일스(미국·15.666점), 샬린 울슨(캐나다·14.550점)에 이어 3위로 8명이 겨루는 결선에 올랐다.  
결선은 11월 2일에 열린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여자 도마 금메달리스트인 여서정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메달을 획득하면 시니어 데뷔 무대를 성공리에 마친다. 또 2020년 도쿄올림픽 메달 획득 기대감도 크게 키운다. /연합뉴스

세계선수권대회에선 단체전 예선에서 기록한 4수 개인의 성적을 바탕으로 개인종합을 비롯해 4개 종목별 결선 진출자를 결정한다.  
여서정을 필두로 윤나래(체전시정), 이은주(강원도체육회), 함미주(경기체고), 김주리(광주체고)로 이뤄진 여자대표팀은 단체전 예선에서 도마-이단평행봉-평준대-마루운동 4개 종목 합계 153.237점을 획득해 참가 42개국 중 14위에 올랐다.  
8개 나라가 겨루는 단체전 결선에 오르지 못했으나 여자대표팀은 내년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 출전권을 따내 도쿄올림픽 출전 희망을 부풀렸다. /연합뉴스



“정말 잘했어” 보스턴 레드삭스의 포수 크리스티안 바스케스(오른쪽)가 29일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5차전에서 5-1 승리를 확정짓고 투수 크리스 세이윤에게 뛰어올라 우승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연합뉴스

## 보스턴, 5년만에 월드시리즈 챔피언

다저스에 4승 1패... 통산 9번째 우승

보스턴 레드삭스가 5년 만이자 통산 9번째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다.  
30년 만에 우승을 노렸던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는 2년 연속 월드시리즈의 패자가 됐다.  
보스턴은 29일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5차전에서 5-1로 승리했다.  
보스턴은 펜웨이파크에서 열린 1, 2차전에서 승리하며 기세를 올렸고, 원정지에서 4, 5차전을 잡으

며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정상에 올랐다.  
1903, 1912, 1915, 1916, 1918년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보스턴은 오랜 기다림 끝에 2004년 정상에 오르며 ‘밤비노의 저주’를 깨더니 2007, 2013년에 이어 올해도 월드시리즈 챔피언에 등극했다.  
보스턴은 2018년 정규시즌에서 108승(54패)을 챙겨 올해 메이저리그 전체 최다승이자, 구단 역사상 최다승을 거뒀다. 이후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에서 라이벌 뉴욕 양키스를, 챔피언십시리즈에

서 다랜딩챔피언 휴스턴 애스트로스를 격파하고 월드시리즈에 진출했다.  
102년 만에 다저스와 월드시리즈를 치른 보스턴은 투수들의 보직을 파괴하는 파격적인 전술로 월드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5차전 선발투수로 파격이었다.  
보스턴은 25일 2차전 선발로 등판하고, 27일 3차전에서 구원 등판한 데이비드 프라이스를 선발로 내세웠다. 프라이스는 28일 4차전에서도 볼펜에서 몸을 풀었다.  
나흘을 쉬고 5차전 다저스 선발로 나선 클레이턴 커쇼는 홈런 3방을 허용하며 7이닝 7피안타 4실점으로 부진했다. 커쇼는 1차전(40이닝 7피안타 5실점)에 이어 5차전에서도 패전투수가 됐다. /연합뉴스